

# 개항기 근대 세계지리 정보의 유통과 확산

한보람\*\*

『한성순보』(漢城旬報)에서 『사민필지』(士民必知)까지\*

**초록** 본 연구는 개항기 조선의 근대 세계지리 정보 유통 과정을 살피기 위해 1880년대 조선 정부가 발행한 『한성순보』(漢城旬報)와 1890년대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H. B. Hulbert)가 편찬한 『사민필지』를 비교 분석했다. 양자는 조선정부에서 구축하고자 했던 1880년대에서 1890년대로 이어지는 세계지리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들이다. 분석 결과, 두 자료는 지구의 형태, 지동설, 5대륙 개념 등 근대 지리 지식의 기본 골격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달 지식의 세부 내용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성순보』는 새로운 지식을 방대한 양으로 독자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려는 논증적 서술이 두드러진 반면, 『사민필지』는 『한성순보』에서 이미 제공된 지식들은 보편적 상식으로 전제한 바탕 위에 관련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이는 『한성순보』 단계에서 축적된 지식이 『사민필지』 단계에서 체계화되고 확산되는 기반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두 자료는 대륙과 각국을 서술하는 관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한성순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당대 아시아의 관점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아프리카 식민지 상황에 동정적 시선을 보내는 등 약소국의 입장을 강하게 투영했다. 또한 조약 체결국과 청불전쟁 관련국 등 당대 조선의 외교적 현실과 직결된 소수의 서구 열강의 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반면, 『사민필지』에는 어진 정치를 기준으로 세계를 서열화하는 한편 미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는 등 미국인 헐버트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다루는 국가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리 교과서의 형태를 갖추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고는 조선사회에서 『사민필지』가 제공한 체계적 지리 정보 이전 단계에 이미 『한성순보』를 통해 상세하고 심층적인 세계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음을 밝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전공 강사

했다. 이는 개항기 조선 정부가 주체적으로 세계 정보를 수집, 가공, 확산시키며 근대의 세계지식 기반을 구축해 나갔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한성순보, 사민필지, 세계지리, 박문국(博文局), 험버트

## 1. 머리말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서 세계지리 정보는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국가생존 모색을 위해 습득해야 하는 핵심적인 지식으로 부상했다. 1880~90년대 조선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필요에 따라 『한성순보』(漢城旬報, 1883~1884), 『한성주보』(漢城周報, 1886~1888), 『만국정표』(萬國政表, 1886), 『수민필지』(1890~1891), 『사민필지』(士民必知, 1895) 등 신문 및 서적, 교과서를 잇따라 간행하며 세계 정보의 확장을 시도했다. 이 중에서도 『한성순보』는 그러한 시도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글본 『수민필지』는 1880년대의 초기적 시도 이후 서구인의 시각을 더한 세계지리 정보의 구축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조선의 세계정보 유통의 중요한 국면을 담당했던 두 자료의 비교 검토는 1880년대에서 1890년대로 이어지는 조선 내 세계지리 정보 유통의 핵심 시점을 살펴보는 작업으로 의미가 있다.

두 자료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한성순보』는 1883년 조선정부의 박문국(博文局)에서 발간된 정부 기관지로서 확장된 세계에 대한 방대

1 『사민필지』는 험버트(Homer B. Hulbert)가 1890~1891년경 제작한 한글본 『수민필지』와 험버트본을 저본으로 의정부 편사국에서 1895년 간행한 한문본 『士民必知』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글본 『수민필지』 초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며, 명칭은 『수민필지』로 표기한다.

한 분량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조선정부는 1876년 개항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했고, 이전 시대와 완전히 달라진 세계 정보의 입수와 유포는 정부의 필수적인 정책 과제가 되었다.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 각국과 조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세계를 향한 관심과 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져 갔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성순보』가 간행되었다.<sup>2</sup>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간행되었지만 『한성순보』에 들어있는 세계 정보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미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전체 기사 중 73.2%를 외국기사인 「각국근사」(各國近事)와 「논설」(論說)이 차지할 만큼 세계 정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수로도 1,150건에 달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분량의 정보가 아니었다.<sup>3</sup> 특히 각호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긴 분량의 세계지리 정보는 그것을 모아 놓은 자체만으로 하나의 세계지리서만큼의 지식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1880년대 초반 조선정부에서 수집, 정리, 유포한 『한성순보』의 세계지리 정보는 당대의 세계 지식을 확산시킨 초기 단계의 자료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sup>4</sup>

2 『한성순보』가 정부 기관지로 발간되어 조선정부의 개방과 근대화 정책의 추진과 궤를 같이하면서 국제 정보를 일반에 배포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한보람(2005),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 『한성순보(漢城旬報)』의 관련기사 분석,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의 내용을 참조.

3 한보람(2005), pp. 110-111.

4 『한성순보』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신문의 간행과정과 뉴스의 인용매체 등을 추적한 초기 연구들[최준(1958), 「漢城旬報에 對한 考察」, 『서울과 역사』 2, 서울역사편찬원; 이광린(1968),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對한 一考察」, 『역사학보』 38, 역사학회; 최준(1969), 「『漢城旬報』의 紐우스源에 對하여」, 『한국언론학보』 2, 한국언론학회; 정진석(1984),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 『언론연구논집』 2(1),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언론연구소]을 비롯하여, 만국공법론 및 개화론 등 『한성순보』에 나타나는 각종 논의에 대한 연구들[김세민(1997), 「한성순보·주보를 통해 본 만국공법관」, 『향토서울』 57, 서울역사편찬원; 정대철(1984), 「漢城旬報·周報의 開化方向에 關한 考察」, 『한국학논집』 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수룡(1988), 「漢城旬報에 나타난 개화·무장론과 그 성격」, 『손보기박사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그리고 『한성순보』의 외국 정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한보람(2005); 김연희(2011), 「『漢城旬報』 및 『漢城周報』의 과학기술 기사

다음으로 『스민필지』는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Homer B. Hulbert)가 육영공원(育英公院) 학생들의 교재로 제작한 조선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이다.<sup>5</sup> 이 책은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과학적 지리 정보를 비롯하여 각 대륙과 그에 속한 국가들의 지리, 정치, 경제, 문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전환기 세계지리 정보의 실용적 정돈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sup>6</sup> 그리고 헐버트의 한글본 『스민필지』가 출간된 후 이를 저본으로 한문본 『사민필지(士民必知)』까지 조선정부 의정부 편사국(編史局)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sup>7</sup> 이 책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각계각층에 세계지리 정보를 확산시킨 중요한 자료로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두 자료는 지금까지 각각 별도의 존재로서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

로 본 고종시대 서구 문물 수용 노력, 『한국과학사학회지』 33(1), 한국과학사학회; 김수자(2012), 「근대 초 『한성순보』에 나타난 공학으로서의 과학과 ‘근대 지식’」, 『이화사학연구』 4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장보운(2016), 「1880년대 『漢城旬報』의 중국 인식」, 『규장각』 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미지(2017), 「『한성순보』와 중국 개항장 신문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 11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미지(2018), 「1883~84년 『한성순보』에 새겨진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정보 전쟁」, 『인문연구』 8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이 존재한다.

- 5 한글본 『스민필지』와 한문본 『사민필지(士民必知)』의 편찬 주체 및 서술내용상 차이에 대해서는 한보람(2025), 「『사민필지』 한글본과 한문본의 서술상 차이와 특징: 유럽편 서술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29, 청계사학회의 내용을 참조.
- 6 『스민필지』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로는 그 집필과정과 내용상 특징을 고찰한 연구[안예리(2023), 「사민필지의 집필 과정과 내용적 특징」, 『국어사연구』 36, 국어사학회]를 비롯하여, 근대전환기 지리교육 고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석(1969), 「사민필지에 관한 일고찰」, 『사대학보』 1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강철성(2009), 「사민필지의 내용분석: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 16-3, 한국지형학회지; 김재완(2001), 「사민필지에 대한 소고」, 『문화역사지리』 13-2, 한국문화연사지리학회] 및 『사민필지』 한글본과 한역본의 분석을 통해 근대 지식의 변용 과정을 고찰한 연구[최보영(2020), 「『사민필지』의 간행·漢譯과 근대 지식의 변용」, 『역사와 세계』 57, 효원사학회] 등이 있다.
- 7 한글본 『스민필지』의 간행년도 추정에 대해서는 최보영(2012), 「育英公院의 설립과 운영 실태 再考察」,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pp. 302-303; 허재영(2016), 「스민필지(士民必知)에 나타난 어문 의식과 근대 지식의 변화」, 『한국언어문학』 99, 한국언어문학회, pp. 63-66; 안예리(2023), pp. 178-180의 내용을 참조.

하지만 두 자료 모두 조선정부 차원에서 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정부가 해당 시기 조선인이 습득해야 할 정보로서 세계지리 정보를 인식하고 배포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자료는 별개가 아닌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민필지』가 조선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이자 조선에 체계적인 세계지리 정보를 공급한 자료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보다 10여 년 이전 시점인 『한성순보』 단계에서 이미 조선에서는 일반에 세계지리 정보가 배포되고 있었던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민필지』는 조선인이 아닌 서양인 당사자가 제작했다는 점에서 당대 ‘세계정세에 무지했던 조선’에 서구의 지리학적 지식, 근대 과학, 천문 지식을 소개하여 근대 한국인의 세계관 변화에 영향을 끼친 책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조선정부가 『한성순보』를 통해 일반에 배포한 세계지리 정보는 조선 사회에서 교과서 『수민필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한성순보』와 『수민필지』는 공통적으로 조선이 세계와 소통을 시작했던 시점에 일반인들에게 국제 지식을 제공하고 정보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한성순보』 단계에서 제공된 상세하지만 제한된 기본 지식은 『수민필지』 단계에서 내용이 간결해진 한편 다루는 대상은 확대되었다. 두 자료는 모두 지구에 대한 근대과학 지식을 비롯하여 5대륙의 분류 및 각 대륙별 정보를 담고 있다. 차이는 각 국가별 정보인데, 『한성순보』에서는 서구 주요국인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미국 등 7개국 정보만 수록한 반면, 『수민필지』는 모든 대륙별로 속해있는 각국 정보를 수록했다.<sup>8</sup> 『한성순보』에 수록된 서구 국가는 해당 시기 조선과 조약관계를 수립한 국가[미(1882), 독(1883), 영(1883), 러(1884), 이(1884)]에 집중되었고, 그 밖에 청불전쟁(1884)의 개전으로 인해 청의 전쟁

8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에 수록된 세계지리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비교는 본문 말미의 [부표 1] 『한성순보』와 『수민필지』 수록 항목 비교표를 참조.

상대에 지대한 관심이 나타난 당시의 상황에서 그 상대국 프랑스가 더해졌다. 1880년대 『한성순보』의 세계지리 정보가 조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서구 강대국에 집중되었던 반면, 1890년대 『스민필지』 단계에서는 각국 정보가 세계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스민필지』에는 유럽 18개국, 아시아 12개국, 아메리카 16개국 외, 아프리카 1개국 외, 오세아니아 각 섬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구미 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소속된 국가들까지 각국 정보가 확장되고 있다.<sup>9</sup> 두 자료 모두 당대의 세계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면에서는 시기적 변화에 따른 내용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성순보』, 『스민필지』의 특성을 비롯한 연결성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미국과 조약 체결 직후 조선이 서구가 포함된 세계 질서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최초 시점이었던 1883년 조선정부가 선별, 제공한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한성순보』의 지략 기사와 미국인 헬버트의 시각을 더한 조선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 『스민필지』의 내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선이 세계지리 정보를 습득, 정리, 배포했던 초기 단계에 유통되고 있었던 세계 정보의 실제 내용과 정보 수준, 그리고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자료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면, 『한성순보』 단계에서 한국에 이미 유통되고 있던 세계지리 정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것이 『스민필지』 단계에서 더 확장되거나 변화되었던 측면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1880년대 단계에서 조선이 자체적으로 습득했던 세계 정보와 1890년대 단계에서 서양인이 선별하여 조선에 강조하고 싶었던 세계 정보의 차이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성순보』와 『스민필지』가 갖는 지식 매체로서 당대의 위상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1880년대에서 1890년

9 러시아와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에 중복 수록됨. 아메리카에서는 센트럴 아메리카 각국, 남북 아메리카 여러 섬이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되었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또한 각 나라가 아닌 영역별로 하나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대로 이어지는 조선 내 세계지리 정보의 유통 현황의 실체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 2. 지구론: 논증에서 상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식의 변화

『한성순보』와 『소민필지』가 제공하는 지구 정보는 공통점이 많다. 『한성순보』는 창간호의 37%에 달하는 분량을 지구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 전달에 할애했다.<sup>10</sup> 또한, 이어지는 제2호에서도 역시 창간호에서 미처 담지 못한 지구 정보를 이어서 수록하여, 기존에 익숙했던 동아시아 범주를 넘어 새롭게 확장된 지구 단위의 정보를 제공했다.<sup>11</sup> 『소민필지』 또한 첫 도입부를 「땅덩이」로 설정하여 전 지구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두 자료가 공통적으로 세계지리 소개의 첫 번째 단계로 근대 천문학 및 지리학의 주요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자료의 공통점은 단지도입부에서 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만은 아니다. 『한성순보』와 『소민필지』의 지구 정보는 구성 골격과 세부 내용이 유사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 두 자료는 다음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둥근 지구와 둘레와 지름의 측정치를 거의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표 2]처럼 태양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지구의 자전과 공전 등 지동설 관련 내용도 거의 유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위도와 경도의 개념, 열대·온대·한대의 기후대 구분과 같은 지식을 비롯하여, 5대양 5대주와 인종 정보로 이어진다([표 3], [표 4], [표 5]의 내

10 『한성순보』 제1호(음력 癸未 10월 초1일/양력 1883년 10월 31일)에서 지구 관련 기사는 「地球圖解」, 「地球論」, 「論洲洋」이며, 이는 해당 호의 총 지면 19면 중 후반부 7면을 차지한다.

11 『한성순보』 제2호(음력 癸未 10월 11일/양력 1883년 11월 10일), 「論地球運轉」.

[표 1]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지구 둘레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지구의 모양은 굴처럼 둥글다. 그러므로 동서 남북의 둘레가 모두 360도가 된다. 이로써 推算하면 每도가 약 242리 2분이고, 둘레를 合算하면 총 87,192리가 된다. 그런데 모든 圓周는 지름과 둘레의 비율이 1대 3이므로 직경은 약 27,602리가 된다. | 형태는 둥글고 해에 비하여 126만 배가 작고 주위는 8만여 리요 바로 꿰뚫으면 2만 7,600여 리이며 |
| 수록정보 | 地球圖解(1호)  | 땅덩이  |

[표 2]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태양계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태양은 항상 항성의 중앙에 처하며, 또 그 위치를 영구히 변치 않으면서 매우 심한 열을 낸다. 또 크고 작은 衆星이 있어 태양의 밝을 도는데, 모두 빛을 내지 못하며 반드시 태양의 遠近에 따라 明暗이 나누어지니, 이것이 태양의 行星이다. 그러나 작은 것은 자세히 말하기 어렵고, 큰 것은 단지 8개인데, 水星·金星·火星·木星·土星·天王星·海王星 그리고 지구이다. | 태양이 한 큰 별이라 극히 빛나며 움직임이 없고 그 가에 도는 별 여덟이 속하였으니 하나는 ‘주피터’요 둘은 ‘비너스’요 셋은 ‘새턴’이요 넷은 ‘마르스’요 다섯은 이 ‘땅’이요 여섯은 ‘넵툰’이요 일곱은 ‘우라노스’요 여덟은 ‘머큐리’니, |
| 수록정보 | 論地球運轉(2호)  | 땅덩이  |

용 비교 참조).

그런데 『한성순보』와 『수민필지』가 제공하는 지구론의 기본 골격이 위와 같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양자 간에는 큰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한성순보』 단계에서는 생소한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설득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민필지』 단계에서는 해당 지식이 간단명료하게 정리되어 제공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는 정보에 대해 『수민필지』에는 ‘(지구의) 형태는 둥글고’라는 간략한 서술을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넘어간다. 반면, 『한성순보』에서는 다음과 같



[표 3]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기후대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남회귀선에서 북회귀선에 이르는 지대를 熱帶 또는 中帶라 하고, 남회귀선에서 남극권에 이르는 지대를 南溫帶라 하며, 북회귀선에서 북극권에 이르는 지대를 北溫帶라 부른다. 그리고 남극권에서 남극에 이르는 지대를 南寒帶, 북극권에서 북극에 이르는 지대를 北寒帶라 부르니, 이것이 소위 지구의 5帶이다. | 항상 뜨거운 고로 열대라 이르고 남황도 밖 8,900리와 북황도 8,900리는 일 년에 한 번씩 햇빛을 바로 받는 고로 여름과 겨울 분별이 있으니 온대라 이르고 남혹도 밖 4,850리와 북혹도 밖 4,850리 남북극까지는 항상 햇빛을 보지 못하여 추운 고로 냉대라 이르며 |
| 수록정보 | 地球圖解(1호)  | 땅덩이   |

[표 4]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5대양 5대주 개념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海洋에 대해 말하면 5大洋이 있다. 즉, 첫째는 太平洋이니, 일명 大東洋이라고도 하며 亞細亞와 오스트레일리아 2주의 동쪽, 아메리카주의 서쪽에 있다. … 둘째는 大西洋으로, 西洋人들은 이를 아틀랜틱양이라고 부른다. … 셋째는 印度洋이니, … 넷째는 南永洋으로 南極에 있고, 다섯째는 北永洋으로 北極에 있다. … 陸地에 대해 말하면, 두 개의 큰 덩어리로 나뉘고, 그 안에 다시 5大洲가 있다. … 아시아주·아프리카주·유럽주이고, … 곧 아메리카주이다. … 즉 오세아니아 주이다. | 이 세상 육지와 바다를 다섯에 분별하여 이름하니 육지 동북 간은 아시아라 이르고 남은 아프리카라 이르고 서북 간은 유럽이라 이르고 동남간은 오스트레일리아라 이르고 세상 서편으로는 아메리카라 이르되 두 쪽이 남북에 잇닿아 있는 고로 남아메리카라 북아메리카라 이르고 또 바다는 아시아 동편과 아메리카 서편 사이는 태평양이라 이르고 아프리카며 유럽 서편과 아메리카 동편 사이는 대서양이라 이르고 아시아 남편과 아프리카 동편과 오스트레일리아 서편 사이는 인도양이라 이르고 남극과 북극에는 남극해라 북극해라 이르며 |
| 수록정보 | 論洲洋(1호)   | 땅덩이  |

이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 사실을 제시하며 서구의 과학지식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것을 독자에게 설득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5]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인종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人種으로 말하면 대략 세 가지이니, 황색인종·백색인종·棕色人種이다. 그러나 세계 인류의 貌色과 骨格은 곳에 따라 다르므로 5종으로 나눈다. 이를 열거하면, 첫째 蒙古種으로 일명 황색인종, 둘째 코카서스 인종 일명 백색인종, 셋째 이디오피아 인종 일명 흑색인종, 네째 말레이 인종 일명 棕色人種, 다섯째 아메리카인종, 일명 銅色人種이 그것이다. | 어떤 이들은 동북간으로 가니 이는 아시아 땅이라 이 사람들을 몽골 인종이라 이름하니 몽골 사람들은 살빛이 좀 누르며 털빛과 눈빛은 검고 어떤 이들은 동남으로 가니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땅이라 이 사람들은 말레이 인종이라 이름하니 말레이 사람들은 살빛이 검붉으며 털빛과 눈빛은 검고 어떤 이들은 서남으로 가니 이는 아프리카 땅이라 이 사람들을 에티오피아 인종이라 이름하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살빛이 검으며 털은 검은 양의 털 같고 눈빛도 검고 어떤 이들은 서북으로 가니 이는 유럽 땅이라 이 사람들을 코카시아 인종이라 이름하니 코카시아 인종 사람들은 살빛이 희며 털빛은 검되 복편 사람들은 노르며 눈빛은 다 푸르고 어떤 이들은 세상 서편으로 가니 이는 아메리카 땅이라 이 사람들을 아메리카 원주민이라 이름하니 아메리카사람들은 살빛은 구릿빛이며 털빛과 눈빛은 검으니라. |
| 수록정보 | 論洲洋(1호)   | 땅덩이   |

세상에서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졌다고 하는데, 이는 다만 천지의道を 말한 것이지, 천지의 모양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의 東方先儒들은 아무도 이를 천명하지 못했다. 明나라 중엽에 이르러 서양인 마테오 리치가 처음으로 지구는 둥글다는 말을 증명하자, 온 세상이 모두들 그 새로운 이론에 놀랐다. 또 學士大夫들은 中外의 편견에 젖어 있었으므로 때때로 들고 일어나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치가 있는 것은 다만 분명히 따져 밝히는 것이 옳지, 中國과 外國을 따져서 구별할 게 아니다.<sup>12</sup>

뿐만 아니라 『한성순보』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사실을 독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12 『한성순보』 제1호(음력 癸未 10월 초1일/양력 1883년 10월 31일), 「地球論」.

있도록 공을 들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한성순보』에서는 ① 항구에서 배를 관찰할 때 돛대부터 보이는 현상, ② 한 방향으로 계속 항해하면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세계 일주, ③ 지역에 따라 해 뜨는 시간이 다른 시차 발생, ④ 관찰자의 위치(남북 이동)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현상, ⑤ 월식 때 달에 비치는 지구의 그림자가 항상 둥근 모양인 점 등 지구가 둥근 이유로 예시를 다섯 가지나 들면서 독자들이 새로운 사실정보를 습득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는 지동설의 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한성순보』에서는 「지구의 운전에 대한 론」을 별도의 기사로 작성하여,<sup>13</sup>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정성들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성순보』에서 지구과학적 사실을 독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기사에 지면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성순보』가 1880년대 근대 과학기술의 보급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속민필지』는 천체와 지구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구체적인 설득의 노력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1890년대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양자의 서술 차이를 통해 지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정보는 『한성순보』 단계에서 기반을 마련해 놓은 바탕 위에 『속민필지』 단계에 보다 간단하면서도 폭넓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대륙론: 아시아와 서구를 바라보는 시선의 교차

『한성순보』와 『속민필지』에서 각 대륙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지구론과 마찬가지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한성순보』의 서술이 방대하고 상세한 반면 『속민필지』의 서술은 간단명료하다는 점에서는 앞서 지구론과 동일하다. 또한, 양자 모두 5개의 대륙에 대한 설명을 별도의 분량으

13 『한성순보』 제2호(음력 癸未 10월 11일/양력 1883년 11월 10일), 「論地球運轉」.

로 배치하여 서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구미 대륙의 강력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하지만 두 자료의 대륙론을 비교해 보면 아시아 대륙을 다루는 시각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각 대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유럽

『한성순보』에서 5대륙 중 유럽은 지구론 다음 차례로 각 대륙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제로, 관련 기사들도 여타 대륙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건수로 나타난다.<sup>14</sup> 『수민필지』 또한 지구 개념의 설명 후 이어지는 각 대륙별 서술 중 가장 먼저 유럽을 수록했다.<sup>15</sup> 양자 모두 5대륙 중 유럽에 대한 지식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럽론 서술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구론의 서술과 마찬가지로 『한성순보』가 지리를 비롯해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 유럽의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 방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수민필지』는 경도와 위도, 지역 경계 및 지형 등 유럽의 지리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사회복지, 관료의 민에 대한 존중과 같이 유럽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언급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서술의 양과 질에서는 차이가 날지라도 유럽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자가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다음 [표 7]에 나타나듯이, 그 강력함과 선진성의 이유로 정치가 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공통된다.

그렇지만 『한성순보』에서는 유럽의 강력함에 대한 단순한 언급을 넘어

14 『한성순보』 歐羅巴洲(제2호), 歐羅巴史記(제10호), 歐亞比例說(제14호), 歐洲各國面積及人口一覽表(제14호), 歐洲各國兵備一覽表(제14호), 地球養民關係論 續前卷 歐羅巴州(제33호).

15 『수민필지』 유로바.

[표 6]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유럽의 강성함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땅은 다른 주에 비교하여 아주 작다. 그러나 그 위치와 形勢를 보면 다른 洲가 따를 수 없다. 전 지구와 비교하여 유럽을 論하면 실로 中央에 처함은 무슨 까닭인가. ... 장사를 하면 반드시 이득을 보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는 주는 북아메리카合衆國을 제외하고는 오직 이 유럽주이다. | 나라가 강하고 군사가 정하며 재물이 많고 재주가 기이하며 학업에 정밀하고 도학에 전일하며 ... 은 천하가 다 가로되 천하 각국 중에 유럽과 아메리카 나라밖에 제일 높은 나라가 다시 없다. |
| 수록정보 | 歐羅巴洲(2)  | 유로바   |

[표 7]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유럽 정치체제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스위스와 프랑스만이 共和政治를 하고, 러시아와 터키는 君主專治를 하며, 기타 각 국은 모두 君主와 國民이 함께 다스린다. ... 재상이 시행한 條案은 민회에 붙일 뿐이고, 시행할 정책은 한결같이 민회에서 의정한 準則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이나 政府가 자기 마음대로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 서양의 富強은 민회에서 나온다는 말이 결코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 정사는 도무지 백성의 뜻을 따르며 ... 도무지 백성을 위하고 그옥이 돌보는 것으로 모든 정사의 주장을 삼는 고로 나라마다 백성들이 제 나라에 즐기니, |
| 수록정보 | 歐羅巴洲(2)   | 유로바  |

구체적인 사회제도와 운영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치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민회의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당대 조선사회에서 서구의 강대한 문물만이 아니라 서구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수민필지』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성순보』 유럽론의 내용은 유럽의 해양과 산맥, 물산 등 유럽 고유의 지리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차, 율선, 전신 등 교통통신의 발전 및 광산, 방직, 조선

등 산업 분야에서 기계의 사용과 같이 유럽을 강력하게 만든 근대 기술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정치면에 관심을 두고 공화정치, 군주정치, 군민공치 등 각국의 정치체제를 나누어 제시하며, 민회의 동의 없이는 국왕과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종교 갈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유럽의 주류 종교인 기독교를 구교, 신교, 회람교의 세 분파로 나누고, 각 종파를 믿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스민필지』의 각국론으로 들어가면 개별적인 언급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유럽 대륙에 대한 전체적인 서술에서는 『한성순보』와 비교할 때 간략하게 마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다.

반면, 『한성순보』에 나타나지 않고 『스민필지』에만 등장하는 유럽 서술의 두드러지는 특징도 한 가지 있다. 전 세계를 다음 [표 8]과 같이 네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서열화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열을 나누는 기준이 국력이 아니라 ‘어진 정사’라는 점이다. 이는 편찬자인 헐버트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스민필지』에서는 1등급 국가 안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어진 정사가 있기 때문으로 서술했다. 이는 당대 조선 정치에 대한 헐버트의 강한 불신과 정치 변화에 대한 강조를

[표 8] 『스민필지』의 각국 서열 4등급 구분표

| 구분  | 국가   |
|-----|--|
| 1등급 |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
| 2등급 |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그리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멕시코, 남미 모든 나라, 일본          |
| 3등급 | 터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트리폴리, 이집트, 몬테네그로, 아시아 모든 나라 (일본 제외)       |
| 4등급 | 아프리카 모든 나라, 태평양 섬 모든 나라, 그린란드, 호주                            |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하면, 유럽에 대한 지식정보는 『한성순보』 단계에서 자연지리, 정치, 역사, 사회, 과학기술 등 전반적인 내용을 조선 사회에 꼼꼼히 전달해 두었으며, 그 기반 위에 『스민필지』 단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간략히 정리하는 한편, 험버트 개인이 조선에 전달하고 싶었던 정보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 ② 아시아

아시아 대륙에 대한 서술은 『한성순보』와 『스민필지』의 내용상 가장 크게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sup>16</sup> 『한성순보』는 기후 현상과 지역별 동식물 분포 등 구체적인 지리과학 정보도 담고 있지만 아시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아시아 문명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담고 있다. 반면, 『스민필지』는 아시아의 위치, 경계, 인구, 인종 등 객관적 주요 정보를 매우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한성순보』에서는 아시아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으며, 유럽은 아시아로부터 문물을 전수받았다는 역사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유럽의 文物은 실로 아시아주에서 준 것이다. 아시아의 文物은 유럽보다 2천여 년 앞섰고 유럽의 文化가 興行한 것은 지금부터 겨우 5, 6백 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아, 함께 논할 수 없다.<sup>17</sup>

또한, 단순 현상의 기재를 넘어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성품 차이를 통해

16 『한성순보』 亞細亞洲總論(제14호), 地球養民關係(제32호), 『스민필지』 아시아.

17 『한성순보』 제14호(음력 甲申 2월 11일/양력 1884년 3월 8일) 「亞細亞洲總論」.

쇠퇴의 원인 분석에 심층적으로 나아간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아시아 사람의 성품은 고요함[靜]을 좋아하고 유럽주 사람들의 성품은 움직임[動]을 좋아하니, 고요하면 정지[止]하고 움직이면 통달[通]한다. 이는 아시아의 文物이 中世에서 정지하고 다시 통달하지 못한 소이다. 또 아시아 사람들은 사물을 쉽사리 믿고 유럽 사람들은 사물을 쉽사리 의심하니, 믿으면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면 반드시 근원을 탐구한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의 현재 문물이 현격하고 융성하고 쇠퇴함이 판이하게 다른 소이다. 비록 그러하나 저들도 丈夫이고 우리도 장부이니 저들처럼 진행해야 한다.<sup>18</sup>

뿐만 아니라 아시아 쇠퇴의 원인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고 아시아의 문화를 만회하자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문물의 隆替와 국가의 성쇠는 적격자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지금 수백 년이나 폐퇴한 아시아의 문화를挽回하여 부강한 유럽과 자웅을 다투려 한다면 누가 적격자인가. ... 수백 년이나 퇴폐한 아시아의 문화를挽回하고 부강한 유럽과 어깨를 겨루어야 하며, 또 시기를 잃지 말아야 하니 일의 성패는 시기의 득실에 있는 것이다.<sup>19</sup>

이처럼 『한성순보』 단계에서 아시아에 대한 지식정보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문명을 만회해야 하고, 또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수민필지』 단계에서는 위치, 면적, 강산의 지형, 기후, 인구와 인종, 소속 국가를 매우 간단하게 나열한 것이 전부이다. 아시아 정보에서 자

18 『한성순보』 제14호(음력 甲申 2월 11일/양력 1884년 3월 8일), 「亞細亞洲總論」.

19 『한성순보』 제14호(음력 甲申 2월 11일/양력 1884년 3월 8일), 「亞細亞洲總論」.



기와 타자의 시선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조선정부는 당대 수세에 몰린 아시아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현실에 대한 고민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아시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서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반면, 『소민필지』의 아시아 서술은 타 대륙에 비해 관련 사실정보를 간략하게만 전달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소민필지』의 독자인 조선인들에게 아시아 정보는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당시 우세하게 다가온 서구 문명에 대응해야만 했던 아시아에 소속된 조선의 입장과 그 서구 문명의 소속 당사자였던 미국인 험버트의 입장 차이이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 차는 『한성순보』와 『소민필지』의 아시아에 대한 정보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 ③ 아메리카

『한성순보』와 『소민필지』는 공통적으로 미주 대륙에 대한 기본적인 지리 정보, 즉 지리적 위치와 산맥, 강, 섬 등의 정보와 인종, 대륙에 속한 국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sup>20</sup> 양자의 차이점은 『한성순보』가 단순 지리를 넘어 역사, 정치, 사회, 과학에 걸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소민필지』는 수치화된 지리 정보가 주를 이루며, 콜럼버스의 발견, 미국의 독립 등과 같은 역사문화적 배경 설명은 부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성순보』의 아메리카 대륙 서술에서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파나마 운하 건설 등 미주의 역사적 전환점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소민필지』의 대륙 설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다음 [표 9]에서 『한성순보』에서 제공하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역사에 대한 정보가 『소민필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비교표로 작성하

20 『한성순보』 亞米利加洲(제3호), 地球養民關係 續前卷 亞米利加洲(제36호), 『소민필지』 아메리카.

[표 9]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1492년에 이태리 사람 哥倫波(콜럼버스)가 일찍 항해술에 밝았는데, 세계의 형상이 공처럼 둥글어서 동쪽으로 가면 印度 諸國이 있어 사람이 살며, 계속 서쪽으로 가서 바다가 끝나는 곳에 반드시 大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 이후 유럽의 관심있는 인사들이 이 일에 잇따라 나섰으며, 哥氏(콜럼버스)가 마침내 아메리카 全洲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점차 이주하여 지금의 부강을 이룬 것이다. | 무    |
| 수록정보 | 亞米利加洲(3)   | 아메리카 |

[표 10]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파나마 운하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중아메리카 남쪽에 파나마해협이 있는데, 바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나누어지는 곳이다. 그 너비는 겨우 1백여 리인데, 지금 대서양 쪽에서부터 뚫어 태평양까지 통하게 하려 한다. / 지금은 파나마 허리의 극히 좁은 곳에다 河口를 터놓아 물길도 이제 트였으므로 이후로는 배를 타고도 다시 돌 필요가 없어, 1만여 리 길을 덜게 되었으므로 각 주에서 편리하다고들 하고 있다. | 남북 아메리카 두 땅이 파나마라는 지협이 백리 되는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
| 수록정보 | 亞米利加洲(3)/地球養民關係 續前卷 亞米利加洲(36)  | 아메리카                                    |

였다.

또한 다음 [표 10]의 비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성순보』에는 파나마 운하의 건설과 효과까지 설명하고 있는 반면, 『수민필지』에서는 파나마 운하의 존재를 단순히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자료의 서술 태도에서도 또 하나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에 따른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11]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성순보』는 원주민의 현실에 대해 ‘슬픈 일’이라고 표현하며 동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민필지』에는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개별 국

[표 11]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아메리카 원주민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銅色人種은 山間으로 숨은 탓으로 다시는 나라를 세우고 自立한 사람이 없다. 아, 손님은 강하고 주인은 약해서 조상이 살던 땅을 빼앗기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으니 슬픈 일이다. | 무    |
| 수록정보 | 亞米利加洲(3)   | 아메리카 |

가 항목에서 미국을 서술한 내용을 찾아봐도 ‘이 나라에 이상함은 유럽 각국 사람과 아시아 각국 사람이 일 년에 수십만 명씩 와서 살고’라고 하여 이주민이 많은 나라인 점을 건조하게 언급하는 것에 그친다.<sup>21</sup>

이러한 차이는 또한 아시아 서술과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강성한 상대의 침투에 밀려난 약소민족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비슷한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었던 『한성순보』의 태도를 보여준다.

종합하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두 자료의 서술은 『한성순보』의 정보가 그 대륙의 역사, 문화를 망라하는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담고 있다면 『수민필지』는 위치 및 지리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통해 아시아 정보와 마찬가지로 서구인과 아시아인의 두드러지는 시선 차이 또한 찾아볼 수 있다.

#### ④ 아프리카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아프리카 정보는 공통적으로 광대한 사하라 사막, 킬리만자로 산, 빅토리아 호수, 마다가스카르 섬 등 아프리카의 대표적 지명 정보를 비롯하여 코끼리, 사자, 타조, 뱀 등 사납고 위험한 아프리카 야생동물 등을 소개하고 있다.<sup>22</sup> 또, 다음 [표 12]의 내용과 같이, 북아

21 『수민필지』 함중국

22 『한성순보』 亞非利駕洲(제4호), 地球養民關係 續前卷 亞非利加洲(제32호), 『수민필지』 아프리카.

[표 12]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아프리카 북부인 구분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사막의 북쪽은 이집트, 모로코 등의 나라인데 가장 北界는 유럽과 인접했고 가장 東北界는 아시아와 인접하여서 우호를 맺어 교역하므로 문물이 불만하고 고적도 상당히 많다. 비록 그곳 사람들은 야성을 다 벗지 못했으나 나날이 점차 개화되어 역시 유럽, 아시아 양주의 風度가 있다. | 북편에 사람은 씨족이 코카서스 인종이요 그 나머지는 다 에티오피아 검은 빛 사람이요 언어는 각각 지방마다 도무지 다르고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오랑개라. |
| 수록정보 | 地球養民關係 續前卷 亞非利加洲(32)  | 아프리카  |

[표 13]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아프리카 원주민과 풍습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그 인종은 모두 흑색인에 속하는데 야만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 심지어 사람을 죽여 제사를 지내기까지 하니 그 풍속의 비천함은 말할 것도 없다. … 풍속은 살벌하고 잔인하여 심하면 각 부락끼리 서로 침략하고 약탈을 하고 인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 부르고, 혹은 市場에 내다가 貿易하기도 한다. 더욱 심한 것은 君臣이나 貴族의 喪에 從僕이나 臣妾 수백 명을 무덤 앞에서 죽여 殉葬하기도 한다. 해마다 祈雨祭를 지내거나 풍년을 빌 때면 반드시 사람을 희생으로 하며, 심지어는 가옥과 가구를 사람의 해골로 꾸미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른바 야만인이라 이들을 두고 한 말이다. |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오랑개라 아무 예의도 모르고 의복도 별로 없고 음식도 없어 나무 열매와 독한 짐승과 벌레를 먹으며[뱀을 많이 먹느니라] 흑 사람의 고기도 먹으며 창과 활은 잘 쓰고 혼인하는 법도 매우 천하며 집은 흙으로 굴과 같이 하고 사람이 사오십 명씩 모여 나라 모양처럼 두목이 있어 항상 서로 싸우나니 |
| 수록정보 | 亞非利加洲(4)   | 아프리카  |

프리카와 그 밖의 지역의 흑인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을 서술하는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공통적인 태도 중 특징적인 부분은 외부인의 시선으로 아프리카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 13]의 내용과 같이, 두 자료는 모두 미개하고 야만적인 대륙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당대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양자 모두

가 아프리카 주민들을 ‘문명화되지 않은 존재’로 묘사했고, 이들의 풍습도 비천하고 잔인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두 자료의 정보에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앞서의 여타 항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성순보』에서는 정치와 역사 정보를 집중적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정보의 질과 양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한성순보』에는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되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역사 정보를 비롯하여,<sup>23</sup> 아시아와 유럽을 잇던 지협이 운하로 바뀌면서 아프리카가 하나의 독립된 주로 형성되었다는 배경을 설명하는 수에즈 운하의 역사적 의의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sup>24</sup>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양자 모두 아프리카 각국이 유럽 식민지가 된 정보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한성순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속국과 독립국의 구별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대서양까지와 북으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를 통틀어 바르바리(Barbary) 지방이라 부르는데, 그곳에는 트리폴리·튀니지·비제르트·알제리·모로코 다섯 나라가 있다. 그러나 지금 트리폴리 및 튀니지 양국은 모두 터키에 조공을 바치고 있으며, 비제르트는 이미 트리폴리의 통할에 들어갔다. 알제리 역시 프랑스의 속국이 되었고, 오직 모로코만이 독립국이다.<sup>25</sup>

23 『한성순보』 제4호(음력 癸未 11월 1일/양력 1883년 11월 30일), 「亞非利駕洲」 “서기 1814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을 통일하려고 하다가 후에 권력을 잃고 영국 사람에게 붙잡혀 세인트헬레나섬에 이주했기 때문에 이 섬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고 한다.”

24 『한성순보』 제4호(음력 癸未 11월 1일/양력 1883년 11월 30일), 「亞非利駕洲」 “동북 한쪽 모퉁이는 겨우 아시아주에 접해 있는데 이곳을 수에즈운하라 한다. 옛날에 이 해협이 겨우 아시아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역시 유럽주에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비록 3洲라 하였으나 실은 하나의 큰 大陸이다. 지금은 수에즈를 뚫어 유럽이나 아시아와 연결되지 않고 한 洲를 이루게 되었다.”

25 『한성순보』 제4호(음력 癸未 11월 1일/양력 1883년 11월 30일), 「亞非利駕洲」.

이 또한 『한성순보』에는 조선의 입장에서 유럽 강대국과 아프리카 약소국의 식민지 점령 관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아프리카 서술 내용을 종합하면, 『한성순보』의 정보가 『수민필지』의 정보에 비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자 모두 아프리카를 문명과 야만의 구분법으로 문명화되지 못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한성순보』는 아프리카 속국 관계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아프리카 각국과 마찬가지로 당시 약소국의 위치에 서 있었던 조선의 시각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민필지』와 차이가 난다.

## ⑤ 오세아니아

『수민필지』에서 오세아니아는 대륙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아프리카’ 항목에 소속되어 소개되어 있을 만큼 비중이 별로 높지 않다. 그에 비해 『한성순보』에서는 유럽을 제외한 여타 대륙들과 기사 건수와 분량이 비슷하여 다른 대륙과 비중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sup>26</sup>

『한성순보』와 『수민필지』는 공통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적 특징, 주요 생산물, 특이한 동물, 그리고 유럽인들의 이주 역사를 다루고 있다. 금의 생산,<sup>27</sup>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 동물 캥거루에 대한 설명,<sup>28</sup> 원

26 『한성순보』 阿西亞尼亞洲(5), 地球養民關係 續前卷 澳大利亞洲(36), 『수민필지』 오스트렐라.

27 『한성순보』 제5호(음력 癸未 11월 10일/양력 1883년 12월 9일), 「阿西亞尼亞洲」 “1852년에는 鑛山業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섬 가운데의 산에서 金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채취하여 제법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유럽 각 국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수민필지』 오스트렐라. “광산은 금이 매우 많고 은과 구리와 참쇠와 서양철과 석탄과 금강석과 붉은 보석이오.”

28 『한성순보』 제36호(음력 甲申 8월 21일/양력 1884년 10월 9일), 「地球養民關係 續前卷 澳大利亞洲」 “특이한 짐승으로 이름이 馬蘇利亞 또는 캥거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胎生 동물이지만 胞만 있고 帶가 없으며, 네 발 달린 짐승이지만 앞발은 짧고 뒷발이 길어 앉

[표 14]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아프리카 원주민과 풍습 서술 비교

| 자료   | 한성순보  | 수민필지  |
|------|---|---|
| 원문   | 1788년 영국 정부가 죄인을 이 섬에 유배한 것이 유럽 사람이 이주한 시초가 된다. 서기 1829년 이후부터 영국의 良民 역시 많이 이주하여 | 이 땅이 황무하여 쓸데없더니 백 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 잘 되게 하니 지금은 매우 부유한 지방이 되었고 |
| 수록정보 | 阿西亞尼亞洲(5)   | 오스트렐라   |

주민의 독특한 도구 부메랑 설명<sup>29</sup> 등도 공통으로 등장한다.

두 자료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한성순보』에서는 오세아니아 대륙 전반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 [표 14]의 비교와 같이, 『한성순보』에는 영국의 죄수들이 이주한 역사적 사실을 명기한 반면 『수민필지』에는 영국인이 이주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 『한성순보』에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난다는 점도 『수민필지』와 차이점이다. 이는 각 섬의 발견 연도, 발견 국가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아서 그 식민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데에서도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유럽인의 이주로 인해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

기를 좋아하고, 가슴팍 앞 젖 밑에 볼록한 肉塊가 있어 새끼가 거기 앉아 젖을 먹게 되어 있다.”

『수민필지』 오스트렐라. “캥거루와 [캥거루 모양은 쥐와 같고 크기는 개와 같고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어 걷지 못하고 뛰며 가슴에 큰 주머니가 있어 달아날 때면 새끼를 담아 가지고 뛰느니라]”

- 29 『한성순보』 제36호(음력 甲申 8월 21일/양력 1884년 10월 9일), 「地球養民關係 續前卷 澳大利亞洲」, “오직 부메랑이라고 하는 나무를 뿔 모양으로 만들어 쓰는데, 그것이 적을 죽이고 다시 돌아온다.”

『수민필지』 오스트렐라. “이 땅에 이상한 것은 한 자 남짓한 굵은 몽치로 후려쳐 던지면 그 몽치가 매우 멀리 가고 그 가는 것이 던지는 사람의 마음대로 바로 가기도 하고 혹 비뚤게 가며 혹 돌아도 가고 그 몽치에 맞으면 아무 큰 짐승이라도 죽고 또 그 몽치가 맞힌 후에 도로 던지던 사람의 손에 와 쥐이니 이 재주는 이 땅 사람밖에 온 천하 사람이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유럽 사람들이 그곳을 通來한 이래 여러 섬이 많이 유럽 제국의 영토가 되고, 혹 토착 야만인으로 孤立을 지켜가는 자들도 번두리 산골짜기에서 각각 부족을 이루어 나무 열매와 흐르는 물을 그대로 마시는 데 불과하다. 더러 비옥한 구역에 사는 자는 유럽 사람들에게 혹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모두 궁벽한 골짜기에 숨어 살면서 감히 유럽 사람들과 싸우지 못한다. 아, 야만인의 풍속이 비록 악하기는 하나 사람으로서 끝내 조상의 땅을 잃고 다시는 이어 나갈 자손마저 없게 되었으니 슬픈 일이라 하겠다.<sup>30</sup>

이와 같은 『한성순보』의 정보에 비해 『수민필지』에서는 실용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오세아니아의 산업, 경제, 지리 정보를 항목별로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어, 아시아에 속한 조선의 입장에서 식민지화에 공감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서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자의 오세아니아 대륙 서술을 종합하면, 『한성순보』 단계의 방대하고 심층적인 정보들이 『수민필지』 단계에는 간략한 실용 정보 중심으로 정돈되고 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한성순보』에는 앞서 여타 대륙들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약소 토착민이 구미의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맞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들어 있어, 당대 조선의 입장에서 각 대륙을 바라보는 시선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0 『한성순보』 제5호(음력 癸未 11월 10일/양력 1883년 12월 9일), 「阿西亞亞洲」.



#### 4. 각국론: 주요국에서 전 세계로, 범위의 확장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의 각국 서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성순보』에 단 7개국의 정보만 소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수민필지』에서는 각 대륙에 속한 다양한 국가의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구미 주요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던 관심과 정보가 전 세계에 대한 고른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한성순보』가 당시 수호조약을 맺었던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를 비롯하여 청불전쟁의 발발로 한층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던 프랑스 등 당대 조선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던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면, 『수민필지』에는 조선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각 대륙에 소속된 국가로서 전 세계적 지리 정보 구축 차원에서 지식의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성순보』에 수록된 각국별 정보가 『수민필지』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미국

『한성순보』에는 1880년대 미국의 지리, 통계, 제도를 망라한 현황을 제공하는 「미국지략」(美國誌略)과 미국의 건국 역사를 담은 「미국지략속고」(美國誌略續稿)가 수록되었다.<sup>31</sup> 이 기사들에서는 미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경제,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미국 건국의 이념적 배경까지 다룸으로써 단순 정보의 전달을 넘어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국가 체제와 정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민필지』의 「합중국」 서술이 기본 지리정보, 정치체제, 경제적 부강, 종교의 자유 등이 간략히 정리된 것과 비교하면 분석적이고 심층적이라는 차이

31 『한성순보』 제12호(음력 甲申 1월 21일/양력 1884년 2월 17일), 「美國誌略」/ 『한성순보』 제14호(음력 甲申 2월 11일/양력 1884년 3월 8일), 「美國誌略續稿」.

가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두 자료 모두에서 미국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이자 최고의 부국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성순보』에서는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것에 비해, 『스민필지』에서는 미국의 부유함과 자유, 개인 및 국가 간 평등의식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한성순보』에서는 ‘합중국’(合衆國)이라는 이름이 ‘함께 다스린다’는 뜻의 ‘합중’(合衆)에서 나온 것임을 글머리에 제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래 국호가 따로 없이 북아메리카라고만 하였다가 독립한 후부터 특별히 합중국이라고 불렀다. 합중이란 함께 다스린다는 뜻이다.<sup>32</sup>

또한, 합중공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 정치 시스템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치는 소위 합중공화이다. 전 국민이 합동으로 협의하여 정치를 하고 세습주군을 세우지 않으며 관민의 기강이 엄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이 만기를 총재하는데, 대통령은 전 국민이 공동으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정했고, 대통령이 혹 직무를 비우게 되면 부통령으로 대신하는데, 부통령 또한 전 국민이 공동으로 선출한다. 대개 대통령은 해군·육군의 군무를 총리하며 상원과 협의하여 외교조약을 정한다.<sup>33</sup>

이러한 『한성순보』의 서술은 『스민필지』에서 미국 정치에 대해 ‘국체를 의논하건대 왕이 없고 정사는 백성들이 주장하며 한 통령을 세워 사 년씩

32 『한성순보』 제12호(음력 甲申 1월 21일/양력 1884년 2월 17일), 「美國誌略」.

33 『한성순보』 제12호(음력 甲申 1월 21일/양력 1884년 2월 17일), 「美國誌略」.

체등하고 온 나라가 49도이니 도마다 한 감사가 있고' 정도로 간단히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sup>34</sup>

한편 『수민필지』에서 강조점을 둔 사안은 다음 내용에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 간 평등 의식과 불간섭 원칙이다.

나라 소무는 아메리카 아무 지방이라도 아무 다른 나라가 장점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무 작고 약한 나라라도 서로 약도를 세웠으면 그 나라가 평등국 됄을 밝히 알게 하고 또 남의 나라 정소를 도무지 아는 체하지 아니하며<sup>35</sup>

『수민필지』에서는 국가 간 국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간섭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성순보』 단계에서 서구와 맺은 최초의 수호통상조약 체결국 미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정치체제에 대한 관심은 1880년대 국정을 운영했던 조선 관료들이 새로운 구미 정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관심사와 함께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다. 그에 반해 『수민필지』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불간섭 원칙, 즉 먼로 독트린의 원칙과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외교 기조를 명확히 설명하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한성순보』에서 '미국은 부강하여 남의 토지를 탐내지 않아' 정도의 단순한 서술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종합해 보면, 『한성순보』에서는 조선의 시각에서 미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드러나는 각종 정보들을 풍부한 분량으로 수록하고 있다면, 『수

34 『수민필지』, 「합중국」.

35 『수민필지』, 「합중국」.

민필지』에서는 여타 각국을 다루는 항목별 포맷에 맞추어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미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서술함으로써 편찬자인 헐버트가 미국인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지식을 기재하고 있다.

## ② 러시아

『한성순보』와 『스민필지』는 공통적으로 러시아가 위협적인 강대국이라는 인식을 서술하고 있다. 『한성순보』 단계에서 ‘러시아의 강역이 전 세계 육지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지구에서 고금에 없이 큰 나라’, ‘건국 이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 뜻을 두어 한결같이 대양과 통할 길을 개척하고’ 등 러시아의 거대한 영토와 침략 위험을 강조한 것은 『스민필지』 단계에서도 ‘러시아는 유럽 모든 나라 중 제일 큰 나라’, ‘온 천하에 제일 강해서 천하 각국이 꺼리며’, ‘나라의 소무를 의논컨대 본나라를 힘써 지키고 또 새 땅 얻기를 매우 힘쓰며’ 등 동일한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성순보』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제시를 통해 조선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가 건국한 이래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데 뜻을 두어 한결같이 대양과 통할 길을 개척하고 남쪽 지방을 개척해서 혹 터키를 공격하기도 하고, 혹은 페르시아를 침략했다. 그래서 동양에 있는 여러 나라는 모두 그들의 침략을 받았다.<sup>36</sup>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 육군과 해군의 조직, 병력 규모, 특징적인 부대 및 군사 육성 학교까지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던 설명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력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36 『한성순보』 제26호(음력 甲申 5월 11일/양력 1884년 7월 3일), 「俄國誌略」.

가장 많은 육군을 보유한 군사력 우위의 모습을 전달했다.

이처럼 『한성순보』가 러시아의 강한 군사력 정보를 상당한 분량으로 제공하여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선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수민필지』에는 다음과 같이 병력 규모와 국민의 군사적 의무를 간단히 언급한 것에 그쳐 러시아의 위협이 『한성순보』의 내용만큼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육군이 200만 명 내에 정병이 80만 명이다. 화륜전선이 사백 척 내에 철갑대 화륜선이 32척이며 [또 온 나라에 누구를 의논치 말고 십칠팔 세부터 30세 까지 그동안에 이삼 년을 도무지 군사 노릇 아니 하는 이가 없다]<sup>37</sup>

또, 『수민필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썰매 타는 생활 풍습, 이리떼의 출몰 등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교양 수준의 지식을 덧붙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 차이가 나타난다.

이 나라에 이상함은 겨울이면 눈이 매우 많이 쌓이는 고로 사람들이 썰매를 말에 매어 타고 다니며 또 이리떼가 많아 사람을 잡아먹는 고로 한두 사람만은 길 다니기가 매우 무서우며<sup>38</sup>

종합하면, 『한성순보』 단계의 러시아의 위협성에 대한 경계는 『수민필지』 단계까지 마찬가지로 공유되기는 하지만 간략한 내용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1880년대 『한성순보』 단계의 심층적 정보가 1890년대 『수민필지』 단계에는 단편적 정보의 나열로 정돈되면서도 사회상과 풍습의 가벼운 정보가 추가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7 『수민필지』, 「러시아」.

38 『수민필지』, 「러시아」.

### ③ 프랑스

프랑스는 『한성순보』 간행 당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록 국가 중 하나로 들어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는 청불전쟁이 한창이던 국제적 상황에서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던 당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한성순보』와 『수민필지』 모두 프랑스의 지리적 위치, 지형, 정치 체제, 주요 산업 등의 기본 정보를 공통적으로 수록했다. 하지만 『한성순보』에는 프랑스의 고대사부터 당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상세히 다룬 반면 『수민필지』에는 역사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한성순보』에서는 다양한 정당들의 존재와 그에 수반되는 정치적 격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종교 및 교육제도의 현황, 식민지 관련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프랑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수민필지』의 서술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중 『한성순보』가 제공한 프랑스 정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한 사안은 프랑스의 군사적 강성함에 대한 것이었다. 『한성순보』에서는 프랑스 해군과 육군의 징병법과 규모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상비병의 숫자로서 이들에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영국이 비록 해군으로서는 이웃 나라들에 그 막강함을 자랑하고 있으나 군함에 있어서는 프랑스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하거니와 또 해군의 징병수에 있어서도 항상 적을세라 걱정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세상에서 강하기론 비할 데 없는 나라이다.’ 등 유럽 각국 중에서도 우세를 점하고 있는 프랑스의 군사력을 강조하고 있다.<sup>39</sup> 또한, 여러 정당의 경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프랑스의 정치를 상세히 설명한 후에도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침략 전쟁의 수행을 연결시켜 서술을 마무리했다.

39 『한성순보』 제17호(음력 甲申 3월 11일/양력 1884년 4월 6일), 「法國誌略續稿」.

만일 외국과 분쟁이 생기면 그 허다한 당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 때문에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자는 항상 외국에서 군사를 일으켜 민심을 하나로 통일시키려 한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및 월남 등의 나라에서 오늘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40</sup>

이는 프랑스의 종교를 서술하는 태도와도 연관되는데, 다음의 내용과 같이 유럽의 선교가 타국에 침투하는 방법과 특히 프랑스가 선교사 파견을 해외 곳곳에 하는 현황을 함께 서술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그들의 교도들을 그들 종교를 믿지 않는 국가에 파견하여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설로 그들을 달래거나 겁내게 해서 반드시 그 종교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총명해서 특별히 모든 학문을 겸비한 사람들은 물론 그 門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리석은 남녀들은 그들 종교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매우 드물거니와 한번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임금이나 부모나 할 것도 없고 친구거나 원수거나 분별할 것도 없이 오직 같은 교도이면 바로 친해지며 심지어는 국가원수거나 분별할 것도 없이 오직 같은 교도이면 바로 친해지며 심지어는 국가와 가정이 교도를 인정한 뒤에라야 그 마음이 쾌할 정도이니 유럽 각국에서 교도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목적도 바로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특별히 세계 각국에 그들의 교도를 많이 파견하기 때문에 교도들의 종적이 곳곳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sup>41</sup>

이러한 서술의 제공은 종교를 통해 조선에 침투한 역사적 기억을 상기시키는 한편 중국이 겪고 있는 프랑스의 침략이 조선에도 심대한 위협이

40 『한성순보』 제15호(음력 甲申 2월 21일/양력 1884년 3월 18일), 「法國誌略」.

41 『한성순보』 제15호(음력 甲申 2월 21일/양력 1884년 3월 18일), 「法國誌略」.

되고 있는 당시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스민필지』에서는 프랑스의 침략 위협은 ‘나라 소무를 의론  
컨대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과 선교사를 힘써 보호하고 아무 무식한 지방  
을 가르쳐 문명케 하고 또 새로 다른 땅 얻기를 힘쓰며 혹 남의 나라 일도  
아는 체하며’ 정도로 간략하게 넘기고 있는 반면,<sup>42</sup> 프랑스의 선진적 복식  
문화와 사회복지 시설 등 문화적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sup>43</sup>

종합하면, 『한성순보』 단계의 프랑스 정보 역시 여타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지리, 역사, 정치 등에 대해 상당한 분량과 심층적인  
내용을 당대 조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스민필지』 단계에서는 역  
사를 제외한 각종 정보를 정돈된 형식으로 간략하게 제공하면서 문화 교양  
정보를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성순보』에서는 청불전쟁 당시의 상  
황과 맞물려 프랑스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지대하였음을 보여주는  
반면, 『스민필지』에서는 프랑스의 각종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전  
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 ④ 기타 국가

『스민필지』가 각 대륙 소속 주요 국가들의 정보를 상당수 수록하면서  
전 세계의 구도와 윤곽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 『한성순보』의 각국  
정보는 당시 조약을 체결한 유럽 각국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  
다.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가 그 대상인데, 두 자료는 공통적으로 각국의 지  
리적 위치, 경계, 지형, 인구, 생산품, 정치체제, 종교 등의 기본 정보를 제

42 『스민필지』, 「프랑스」.

43 『스민필지』, 「프랑스」 “온갖 손재주와 농사와 장사와 그림과 군사와 음식 만들기와 바느  
질과 춤추기와 헤엄치기와 앉은뱅이와 병어리와 귀머거리와 소경을 가르치는 학당이 있  
으며 또 유럽과 아메리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일 년이면 몇 번씩 의복모양을 바꾸는 풍  
속이라 의복 모양 새로 하기는 다 프랑스에 배워 결단하며”.



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성순보』가 각국의 역사와 산업 및 근대적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서술과 통계 등 해당 국가의 전반적 정보와 국력에 관련된 정보에 치중했다면 『수민필지』는 기존의 정보는 간략하게 처리하면서도 사회 복지제도와 교육 제도, 풍속 등 추가적 정보를 더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한성순보』가 각국에 대한 초기 정보를 구축, 제공하는 단계에서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집단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수민필지』는 조선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던 기존 세계지식의 바탕 위에 조선의 정치, 사회, 교육의 변화를 추구했던 서양인 험버트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성순보』 단계에 형성, 공유되었던 각국 정보의 수준이 심층적, 구체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 『수민필지』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정보 유통 기반 위에서 정보를 보다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시각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었던 당대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정부가 제공한 근대 전환기 세계지리 정보의 유통 측면에서 각기 중요한 국면을 담당한 자료로서 『한성순보』와 『수민필지』에 주목하여, 각 단계별 정보 유통의 수준과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조선 정부는 『한성순보』 단계에서 이미 지구와 각 대륙, 서구 열강 7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상세하면서도 심층적인 수준에서 입수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입수한 정보는 선별, 정리되어 『한성순보』라는 신문의 형태로 일반에 배포되고 공유되었다. 1880년대의 『한성순보』 단계에서 조선 사회에 공유되었던 정보는 1890년대의 『수민필지』 단계에 들어 세계지리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교과서로 구성, 유포하는 작업의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수민필지』에서 단순화되고 간략화된 세계 지식의 이해 이전에 『한성순보』로 대표되는 조선의 기존 세계지리 정보(『한성주보』, 『만국정표』 포함)의 유통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성순보』와 『수민필지』를 조선 내 세계지리 유통의 각 단계로 인식하고 양자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살필 수 있었다. 우선, 두 자료가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한성순보』가 당대 조선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 조선이 마주한 현실에 유용한 관점의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여 조선인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수민필지』는 서양인 험버트의 관점에서 조선의 취약점으로 인식했던 고위 관료 지배층의 부패와 고루함을 타파하고 젊은 엘리트 계층의 각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성순보』가 당시 쇠퇴를 면치 못한 아시아 문명의 일원으로서 약소국의 입장에 공감을 표출하고 있다면, 『수민필지』는 서양인의 시각에서 조선에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세계지식 정보를 정리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근대 전환기 조선정부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배포했다. 이는 1880년대 『한성순보』, 『한성주보』에서 해외 신문 잡지의 서구 정보를 발췌, 유포하던 사업에서, 정부가 세운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의 교과서로 미국인 험버트에게 『수민필지』를 간행하게 했던 사업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조선정부는 한글본 『수민필지』를 저본으로 한 한문본 『사민필지』를 간행했다. 이는 험버트가 만들어낸 정보를 더 넓은 범위의 한문 독자층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조선정부의 유연성과 실용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항 이후 조선사회에는 정부차원에서 끊임없이 시도했던 세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지식 구축 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 조선 내 세계지식 정보는 시기에 따른 변화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부표 1: 『한성순보』와 『소민필지』 수록 항목 비교표

| 소민필지          | 한성순보<br>(괄호 안은 호수 표기)   | 소민필지                | 한성순보<br>(괄호 안은 호수 표기)                |
|---------------|---|---------------------|--------------------------------------|
| 땅덩이           | 地球圖解(1), 地球論(1),<br>論洲洋(1), 論地球運轉(2)  |                     |                                      |
| 유럽            | 歐羅巴洲(2), 歐羅巴史記(10), 歐<br>亞比例說(14), 歐洲各國面積及人<br>口一覽表(14), 歐洲各國兵備一覽<br>表(14), 地球養民關係論 續前卷<br>歐羅巴州(33) | 아메리카                | 亞米利加洲(3),<br>地球養民關係 續前卷<br>亞米利加洲(36) |
| 러시아           | 俄國疆域記(11), 俄國誌略(26),<br>俄國誌略續稿(28)  | 캐나다                 |                                      |
| 노르웨이<br>스웨덴   |   | 합중국                 | 美國誌略(12),<br>美國誌略續稿(14)              |
| 덴마크           |   | 알래스카                |                                      |
| 독일            | 德逸國誌略(18), 德國誌略續稿<br>(19)   | 그린란드                |                                      |
| 네덜란드          | 和蘭誌略(31)  | 멕시코                 |                                      |
| 벨기에           |   | 센트럴<br>아메리카         |                                      |
| 영국            | 英國誌略(6)   | 남북 아메리카<br>사이에 여러 섬 |                                      |
| 프랑스           | 法國誌略(15), 法國誌略續稿(17)  | 콜롬비아                |                                      |
| 에스파냐          |   | 베네수엘라               |                                      |
| 포르투갈          |   | 기아나                 |                                      |
| 스위스           |   | 브라질                 |                                      |
| 이탈리아          | 伊國誌略(30)  | 에콰도르                |                                      |
| 오스트리<br>아-헝가리 |   | 페루                  |                                      |
| 터키            |   | 칠레                  |                                      |
| 루마니아          |   | 볼리비아                |                                      |

| 수민필지                | 한성순보<br>(괄호 안은 호수 표기)    | 수민필지         | 한성순보<br>(괄호 안은 호수 표기)                 |
|---------------------|--------------------------|--------------|---------------------------------------|
| 세르비아                |                          | 아르헨티나<br>함중국 |                                       |
| 몬테네그로               |                          | 우루과이         |                                       |
| 그리스                 |                          | 파라과이         |                                       |
| 아시아                 | 亞細亞洲總論(14)<br>地球養民關係(32) | 아프리카         | 亞非利駕洲(4),<br>地球養民關係 續前卷<br>亞非利加洲(32)  |
| 아시아<br>러시아          |                          | 이집트          |                                       |
| 청국                  |                          | 바르바리         |                                       |
| 조선                  |                          | 아프리카<br>서편   |                                       |
| 일본                  |                          | 아프리카<br>남편   |                                       |
| 베트남                 |                          | 아프리카<br>동편   |                                       |
| 태국                  |                          | 마다가스카르       |                                       |
| 버마                  |                          | 오스트레일리<br>아  | 阿西亞尼亞洲(5),<br>地球養民關係 續前卷<br>澳大利亞洲(36) |
| 인도                  |                          |              |                                       |
| 발루치스탄<br>아프가니스<br>탄 |                          | 태평양 섬        |                                       |
| 아라비아                |                          |              |                                       |
| 페르시아                |                          |              |                                       |
| 아시아<br>터키           |                          |              |                                       |

## 참고문헌

### 자료

『漢城旬報』

『士民必知』

『사민필지』

### 논저

- 강철성(2009), 「사민필지의 내용분석: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 16-3, 한국지형학회지.
- 김미지(2017), 「『한성순보』와 중국 개항장 신문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 11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김미지(2018), 「1883~84년 『한성순보』에 새겨진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정보 전쟁」, 『인문연구』 8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세민(1997), 「한성순보·주보를 통해 본 만국공법관」, 『향토서울』 57, 서울역사편찬원.
- 김수자(2012), 「근대 초 『한성순보』에 나타난 공학으로서의 과학과 ‘근대 지식」, 『이화사학연구』 4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 김연희(2011), 「『漢城旬報』 및 『漢城周報』의 과학기술 기사로 본 고종시대 서구 문물 수용 노력」, 『한국과학사학회지』 33(1), 한국과학사학회.
- 김재완(2001), 「사민필지에 대한 소고」, 『문화역사지리』 13-2, 한국문화연사지리학회.
- 안예리(2023), 「사민필지의 집필 과정과 내용적 특징」, 『국어사연구』 36, 국어사학회.
- 이광린(1968),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對한 一考察」, 『역사학보』 38, 역사학회.
- 이기석(1969), 「사민필지에 관한 일고찰」, 『사대학보』 1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이수룡(1988), 「漢城旬報에 나타난 개화·부강론과 그 성격」, 『손보기박사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 장보운(2016), 「1880년대 『漢城旬報』의 중국 인식」, 『규장각』 4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정대철(1984), 「漢城旬報·周報의 開化方向에 관한 考察」, 『한국학논집』 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정진석(1984),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 『언론연구논집』 2(1),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언론연구소.
- 최보영(2012), 「育英公院의 설립과 운영실태 再考察」,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 최보영(2020), 「『사민필지』의 간행·漢譯과 근대 지식의 변용」, 『역사와 세계』 57, 효원사학회.
- 최준(1958), 「漢城旬報에 對한 考察」, 『서울과 역사』 2, 서울역사편찬원.

- 최준(1969), 「『漢城旬報』의 뉴우스源에 對하여」, 『한국언론학보』 2, 한국언론학회.
- 한보람(2005),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 『한성순보(漢城旬報)』의 관련기사 분석」,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 한보람(2025), 「『사민필지』 한글본과 한문본의 서술상 차이와 특징: 유럽편 서술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29, 청계사학회.
- 허재영(2016), 「『스민필지(士民必知)』에 나타난 어문 의식과 근대 지식의 변화」, 『한국언어문학』 99, 한국언어문학회.

원고 접수일: 2025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10월 2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11일

## ABSTRACT

# The Circulation and Spread of Global Geographical Knowledge in Enlightenment-Era Korea

Han, Boram\*

From *Hanseongsunbo* to *Saminpilji*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Hanseongsunbo* (漢城旬報), a newspaper published by the Joseon government in the 1880s, and *Saminpilji* (士民必知), a textbook compiled by the American missionary Homer B. Hulbert in the 1890s, to examine the circulation of modern world geographical information during Joseon's Port-Opening Period. These two works are key sources that reveal the content, level, and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world geographical information that the Joseon government sought to establish from the 1880s to the 1890s.

The analysis reveals that both sources share a fundamental framework of modern geographical knowledge, including the spherical shape of the Earth, heliocentrism, and the concept of five continents. However, they exhibit distinct differences in the specifics of their delivery. *Hanseongsunbo* is characterized by an argumentative narrative style that presents vast amounts of new information to persuade the reader. In contrast, *Saminpilji* treats this knowledge as established common sense and summarizes

---

\* Lecturer, History and Culture, H-LAC, Daejeon University

it concisely. This suggests that the knowledge accumulated during the *Hanseongsunbo* period laid the foundation for its systematization and diffusion during the *Saminpilji* period.

A fundamental difference is particularly evident in their perspectives on continents and nations. Reflecting the struggles of contemporary Asia, *Hanseongsunbo* strongly projects the viewpoint of a less powerful nation, expressing a sympathetic perspective on Native Americans and the colonial situation in Africa. Furthermore, it provides an in-depth treatment of a few Western powers directly tied to Joseon's contemporary diplomatic realities, such as treaty partners and nations involved in the Sino-French War. *Saminpilji*, in contrast, reflects the perspective of its American author, Hulbert, by ranking the world's nations based on the standard of "benevolent governance" and emphasizing the American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t also expands its scope to cover countries worldwide, thereby adopting the format of a more systematic geography textbook.

Through this comparison, this study reveals that prior to the systematic geographical information provided by *Saminpilji*, detailed and in-depth global information had already been circulated via *Hanseongsunbo*. This is significant as it demonstrates the continuous efforts of the Joseon government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to proactively collect, process, and disseminate global information, thereby independently building a foundation for modern world knowledge.

**Keywords** *Hanseongsunbo*, *Saminpilji*, World Geography, Bakmun'guk (博文局), Homer B. Hulbert